

치 사

포교의 역사와 현황을 알려주는 『포교총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포교원이 종단의 별원으로 승격하여 지금까지 16년여 년의 성상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포교원에서는 포교영역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새로운 포교지평을 열어왔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한 권의 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총람은 종단 포교의 역사를 살펴보는 귀중한 저술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사명은 전법과 포교이며 한국불교의 중요한 역할 또한 전법과 포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의 코드를 읽고 그에 걸맞는 포교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울러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각종 포교조직 및 신도조직의 구축과 더불어 거기에 소통의 피가 흐르게 하고 화합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 또한 정성과 살핌, 큰 틀에서의 비전 제시, 정체성 함양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오늘날 포교원에서 괄목할만한 포교의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 그리고 전법단의 출범과 활동은 새로운 포교영역을 개척한 큰 성과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교총람』의 내용으로 알차게 씌어졌다는 점에서 이 총람은 포교전반을 비추어보는 포교고경(布教古鏡)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살피고 나갈 때, 그 동안 어떤 변화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떠한 결실을 거두었는지는 일차적으로 역사의 기록을 통해 밝혀집니다. 따라서 포교에 대한 정확한 현황의 기록과 정리는 포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기약하는 훌륭한 근거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포교총람』은 포교원의 흐름과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저술로서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한 축을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금번 『포교총람』 발간을 계기로 우리 종단이 더욱 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응비의 날개를 높이 펼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이 총람이 발간되기까지 진력하신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과 땀방울이 풍성한 결실로 회향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총무원장 자승